

라. 인삼 및 인삼제품 유통구조 실태와 가격 동향

인삼은 영년작물로 일반작물과 달리 아무데서나 자라지 않는 까다로운 재배방법이 요구된다. 보통의 밭작물과는 판이하게 음지에서 길러야 하므로 해가림시설이 필요하고 추운 곳에서는 동해를 피하기 위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경운이나 파종이외에는 기계화의 어려움으로 대량생산이 쉽지 않고 노동집약적인 생산으로 생산비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목화나 옥수수처럼 지력을 크게 소진시키는 작물로 일반적으로 4년이나 6년후 수확한 다음 연작이 안 된다. 작물로 키우는 인삼은 밀식으로 재배하게 되므로 땅심은 말라버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력이 쇠한 땅에는 당분간 농사가 불가능하므로, 지력 회복을 위해 콩 같은 지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작물로 지력을 회복시킨 뒤에 다시 인삼을 재배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삼의 큰 위기는 중국이나 미국삼등 외국삼의 시장 침투는 물론 기존 삼밭의 황폐화로 인한 한국 내 인삼밭의 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인삼재배는 기계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으로서 인삼 세계무역의 30%이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와 유통분야를 집중 연구함으로써 화기삼은 사포닌함량이 적으면서도 홍콩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내세우고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삼은 병충해에도 약하여 재배하기 까다로운 작물이다. 그러면서도 인삼의 활용은 약용뿐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과 함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5년근 이하의 뿌리 삼은 식품의 재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인삼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연구로 인삼성분을 화장품에 담아내는데 성공하였다. 피부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사포닌 성분을 피부에 잘 흡수되는 성분으로 전환시키는 독보적인 가공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화장품을 세계시장에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만든 것이다.

인삼을 상업적으로 재배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캐나다, 미국이 세계 생산량의 99%를 생산하는 주산지이고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은 소량생산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북미삼(*Panax quinquefolius* L)은 한국 인삼(*Panax Ginseng* C.A.Meyer)이나 중국의 인삼과는 품종이 다르고 사포닌성분이나 함량도 고려인삼에 비하여 뒤떨어지지만 캐나다의 뿌리 삼 수출은 가장 앞서고 있다. 인삼을 소비하는 나라는 그 대부분이 유교 문화권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 등지이며 인삼 가공제품의 최대소비국은 미국, 덴마크 등 유럽연합이다.

(1) 중국 인삼제품 구분

중국에서 인삼과 인삼가공제품은 약재와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국가식약품관리국(SFDA)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약재는 중약재의 원료로 쓰이는 것이며 보건식품은 건강보조제로 쓰이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치유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보건식품이란 개념은 보건식품, 보건용품, 보건기기, 보건화장품 4가지를 포함한다. 보건식품은 특정 사람에게 적용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식품으로 정의돼 있다. 칼슘 보충류, 비타민 보충류, 다이어트류, 미용류, 두뇌영양류, 위장기능개선류, 면역력 증가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삼류는 이 중 면역력 증가류에 포함된다. 중국의 표준에 따르면 보건식품은 식품의 일종으